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제3948호 2018년 5월 2일 수요일

[인터뷰]
한반도 공존의 길을 묻다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
03

Economy

코스피 2515.38 (0.00)

코스닥 875.95 (0.00)

금리(국고채 3년) 2.22 (+0.02)

환율(원·달러) 1068.00 (-8.60) 〈1일〉

남북정상회담 그 이후 발 빨라진 남북경협 움직임에 재계도 분주

현대아산, 심층 논의·두산, 전력사업 타당성 검토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면서 재계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대북사업을 주도해 온 현대그룹의 현대아산은 경협 재개에 대비한 심층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업계도 대북사업 테스크포스(TF) 구축에 나섰다.

1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그룹에서 대북사업을 주도해 온 현대아산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하고, 경협 재개에 대비한 심층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달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에 따라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앞서 지난 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는 대북 제재가 풀릴 경우, 남북 경협에 착수할 수 있는 사전 조치 성격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재계는 분석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에 활용되는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특히 현대아산은 개성공단 개발사업권자이자 금강산관광의 주사업자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 공단에서 호텔과 면세점, 식당, 주유소 등 지원시설을 운영해 온 만큼 이번 정상회담 이후 경협 본격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그간 대북사업이 재개된다는 희망 아래 꾸준히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메뉴얼은 만들어 놓은 상태로, 지금은 심층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경협 관련 대비책 마련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철도 복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도 개성~문산 고속도로 건설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발전소 인프라에 강점이 있는 두산그룹은 북한 발전소 전력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전체 매출 가운데 77.7%인 4조4647억원을 발전사업에서 얻은 만큼 대북 발전사업에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장비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발전·송배전용 전기장비를 생산하는 현대일렉트릭 등도 북한 발전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도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선봉에는 현대건설이 설 것으로 봤다. 현대아산의 2대주주인 현대건설은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 정주영 체육관, 대북 경수로 사업 등 다양한 북한 내 공사 경험을 갖고 있다.

현대건설과 신포 경수로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우건설의 경우 경협 수주를 목표로 SOC 사업 가능성 등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韓·日·中 정상회의 日 도쿄서 9일 개최

한국, 일본, 중국이 오는 5월9일 일본 도쿄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는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수 주내에 치러질 북미정상회담 장소 중 하나로 판문점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당일 일정으로 9일 일본을 방문한다"면서 "이번 방일은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선 6년 만"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선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국빈으로 방일한다.

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에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의도 갖는다.

김 대변인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은 실질 협력 발전 방안을 중점 협의하고 특히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일·중 3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한·일·중 정상회담은 이번이 7차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에는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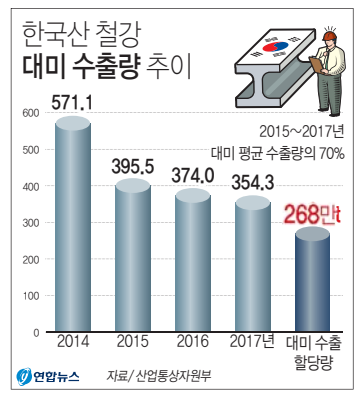
한·일·중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될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선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노동을 새로 쓰자"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세계노동절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韓, 철강 관세폭탄 피했다

美, 고율관세 면제 확정
업계 "타 국가 지켜봐야"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하게 됐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며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공개했다.

백악관은 미국 행정부가 철강 수출과 관련해 한국과 최종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합의의 골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유일하게 관세를 면제받으면서 가장 먼저 철강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아직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관세를 내는 국가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이 반덤핑 조사 등 다른 수입규제로 철강업계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미 통상당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었다"며 "앞으로 상황은 국내 업계 간 쿼터 배분 협의와 다른 국가와 미국의 협상 상황을 봐야 우리 업계의 이익이나 손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롯데 총수, 이재용·신동빈으로 바뀐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발표
네이버 이해진 총수 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총수(동일인)를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 총수를 신동빈 회장으로 각각 변경했다. 30여년 만의 일이다.

이들이 지배구조 정점에서 주요 임원의 선임과 투자를 결정하는 등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GIO)을 네이버의 총수로 유지한 것도 개인 중 회사 지분율이 가장 높고,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일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관련기사 2면〉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최다출자자는 이건희 회장이지만, 지난 2014년 5월 입원 후 현재까지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삼성물산·삼성생명 등을 통해 간접 지배하는 등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부회장 직책에서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그룹의 총수를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이유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이며,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 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과 롯데는 기존 동인인의 지분요건 및 지배력 요건을 충분히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년 동안 그룹의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GIO)가 동일인 지위를 유지했다. 이 GIO는 최근 지분 0.6%을 매각했지만 여전히 네이버의 개인 최다 출자자이고 이사직 등을 사임했음에도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해외 신기술 및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GIO라는 직책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인 기술기업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이 고려가 됐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